



그림·박용석

한국禪·불교문화 세계로...미래로...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새천년 포교전략

이제 두달만 지나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는다. 새천년 21세기에는 정보화와 첨단과학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그 변화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고 교화할 수 있는 포교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 종단들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 태고 천태 진각 등 4대 종단으로부터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는 새 포교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교전략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신도조직의 변화이고 둘째는 정보화사회의 대응, 셋째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도조직의 변화는 기존의 단선적인 신도조직의 틀을 일과 활동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 즉 종회의 연대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실천활동을 조직해 내기 어려운 연령대별 조직을 탈피하여 일과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하는 것이다. 그 일과 활동은 바로 봉사과 공동선의 추구를 말한다. 이는 신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사회의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여 신도조직이 사회적 역할과 힘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교가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해법과 동시에 간접포교를 통한 사회와 일반 대중의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단위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종회의 연대를 이룩하면 말 그대로 조직적인 실천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종회의 연대, 즉 네트워크 형성을 장기적 신도정책으로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는 새로운 지평인 정보화 사회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한정된 지역과 공간에 국한된 정

실천중심 신도조직 재편 달마넷 정보서비스 강화

보로는 더이상 변화에 대응할 수도 선도할 수도 없다. 조계종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불교정보의 종합정보망인 달마넷을 개편시킨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이버포교의 강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과학과 윤리의 괴리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가치를 제시해 나가는 것 역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포교적 과제라 생각한다.

셋째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이다. 이제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불교사상이 서양의 물질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세계불교의 주류는 티벳불교와 일본 불교이며 한국불교가 문명사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사상, 한국불교의 진수를 전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세계화, 국제포교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선불교와 산사의 전통불교문화는 21세기 대중교화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됨으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갈 것이다.

천태종

21세기의 변화에 맞추어 수행중심의 포교방법을 유지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과학과의 균형을 맞추어 신도들을 교육시켜 나갈 것이다. 천태사상의 특징은 교관겸수이다. 교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의 실천을 똑같이 중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도들에 대한 교리공부는 법회와 설법중심의 교육뿐이었다. 다가올 21세기를 이러한 지역법회중심의 교육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전국의 사찰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일체화시키고, 동일한 가르침을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가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의 연결이고, 또 하나는 위성방송을 통한 생중계 방송이다. 외적으로는 현재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충하여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교를 알리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의 포교사들이 법문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법문내용을 단일화하고, 신도들의 일체감을 높이는 일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장 손쉬운 포교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단체별로 사이버 법회를 결성해 인터넷 상에 단체별 대화방을 만들고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메일을 가지고 접속하여 공동의 대화의 장을 꾸려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종단의 행사를 디지털 녹화기로 찍

인터넷망·위성방송 활용 법회·불교행사 동시 중계

어 인터넷에 그대로 접속하여 송신함으로써 신도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위성방송의 이용은 종단에 미니 불교방송국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포교매체가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법회와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법사와 강사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위성방송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최고의 전문인들을 초빙하여 전국의 종도들에게 일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이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체득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도록 인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수행을 통해 이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할 때 포교의 중심 또한 수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태종의 전통은 주경야선, 즉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사부대중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 수행과 교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1세기에 도전하는 포교방향이다.

태고종

새로운 시대의 포교는 곧 사회를 정화하고 대중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고 대중을 교화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처럼 법문을 들려주는 법회나 불공 같은 의식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정보화사회와 첨단과학 또는 첨단산업화에 걸맞는 포교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태고종은 대승교화종단이다. 이는 대중의 선도와 교화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불교종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가 바뀌면 그에 부응하여 항상 선진교화에 노력해왔고 또 지금도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태고종은 지금 종단업무는 물론 전국사찰 업무를 거의 전산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최신정보기술을 익히는 한편 그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그 처리 능력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포교해나가기 위해서다.

태고종의 또 하나 포교 계획은 가족단위의 포교방법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태고종의 많은 승려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즉 가족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어 수행과 생활이 따로 없다.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생활인 것이다. 이는 부처가 중생과 다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심불급중생 무차별(心佛及衆生 無差別)'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속과 대중을 교화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전국 사찰업무 전산작업 과학·정보시대 윤리 제시

점으로 나타난다.

태고종 승려는 안으로는 자기완성에 치열한 정진을 추구할 것이나 대중교화에 대하여 따로 익히고 연구할 것이 없다. 가정생활을 통한 경험과 수행이 바로 교화능력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포교방법은 없으리라고 본다. 또 그 근거를 간파하고 접촉·동화하는데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교와 교화에 효과가 다른 교역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과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이러한 화광동진의 정신으로 대중속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과학·정보화의 가속으로 한층 이기적이고 소외감이 커갈 21세기 인간사회에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윤리관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해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변할 수 없을 것이고 가족이 안락하고 평화로우야 그 사회와 시대가 안락하고 평화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새 시대에 있어서 가족법회는 대단히 의미가 큰 것이다.

진각종

우리 종단의 포교정책은 정보화와 전문화를 통한 신지식이 주도하는 사회, 민족의 새로운 계기로 도래할 남북통일, 과학과 정보망의 발달로 세계의 생활권이 점차 좁아지는 국제화 시대, 인간 스스로가 부의 축적과 경제적 가치보다는 안정되고 행복 추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심화되는 복지시대라는 시대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를 공유하여 국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종단의 조직체계의 편성을 3대정책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재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통한 종정정의 전산화, 인터넷 포교를 강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단 중앙기발전 백서를 마련하고 청소년 교화사업을 위한 청소년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신도회 조직 정비와 함께 복지법인과 연대한 신도활동 강화, 이미지 통합작업을 통한 불교용품 및 시각적 불교홍보물 개발 보급, 불교연극과 음악과 예술인 등에 대한 불교문화육성과 보급을 목적으로한 대내외적인 지원등을 단계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불교연구소, 군불교 발전을 위한 모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한국불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통일불교사업

통일·복지사업 적극전개 전문인재 교육불사 역점

의 전개와 함께 국제포교와 군포교, 공공기관단체 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불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돈독한 신심, 그리고 사부대중의 단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진각종의 교육정책은 크게 사회회향적 성격의 교육과 대내적 성격의 두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회당 대종사 탄생100주년을 계기로 회당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종단 4대성지 성역화 작업의 성료와 교법과 종학의 연구 및 보급을 통한 종단위상의 정립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전문적 교화수업을 양성하며, 신도 교육을 통한 포교사를 양성 확충하여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교화를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오늘날 인구의 노령화현상과 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진각 복지회를 설립하여 복지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회 일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최근 NGO 가입을 통한 국제후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제 1차 사부대중 결의대회

- 일시 : 1999년 10월 12일(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재판부는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서울지법(민사 42부)의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과 2일 직무가처분 판결은 세속법치주의로 신성한 종교의 영역을 재단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린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우리 불교의 법통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조계종단의 법통을 짓밟고 재판부 임의로 관선 총무원장을 임명하려 한 행위는 1천6백만 한국불교 미증유의 치욕적인 사건으로서 2천만 불자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폭력집단은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폭력집단 정화 측은 종단법으로도, 세간법으로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불법집단입니다. 지난해 가공할 폭력행위로 전 세계에 망신을 끼쳤던 그 집단이 어찌 승가단체라 하겠으며, 조계종단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 조계종 집행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법원이 지명했던 도전 직무대행자는 고산 총무원장 스님의 결단으로, 법적 효력을 단 한 순간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고산 총무원장 스님과 현 집행부는 종정 해임 여부를 위시하여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종회 등 종단 내 모든 종헌기구와 2천만 불자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합법적인 집행부입니다.

모임시다!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조계사로---

힘은 모임 때 생깁니다. 우리 2천만 불자가 모인다면 그것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불교 자주권과 법통 수호의 힘이 됩니다. 조계사에서 2천만 불자의 저력을 과시하고 뜨거운 애증심으로 종단의 명예로운 새 날을 열어갑시다.

※재가불자는 행사당일 직장에서 월차휴가를 내고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법통수호 대책위원회

원로회의 총무원·교육원·포교원, 호계원,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신도회·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제2교구본사 용주사·제3교구본사 신흥사·제4교구본사 월정사·제5교구본사 범주사·제6교구본사 마곡사·제7교구본사 수덕사·제8교구본사 직지사·제9교구본사 동화사·제10교구본사 은혜사·제11교구본사 불국사·제12교구본사 해인사·제13교구본사 쌍계사·제14교구본사 범어사·제16교구본사 고운사·제17교구본사 금산사·제18교구본사 백암사·제19교구본사 화엄사·제20교구본사 송광사·제21교구본사 대흥사·제22교구본사 관음사·제23교구본사 선운사·제24교구본사 봉선사

● 종단 자주회의 뜻은 있으나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금접수는 농협 053-12-077474(예금주:총무부장 원택)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